

사회

시교육청, 여름방학 추가 보충수업 금지령

광주 고교 교실 학력저하 비상

진학교사들 “3학년만이라도 늘려 달라” 거부 당해

광주지역 고교에서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해온 방학 중 보충수업 시간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고교에서 교육청의 가이드라인보다 20~30% 가량 늘려 편성했던 재량보충수업 시간을 겨우에 이어 이번 여름방학에도 줄일 수 밖에 없어 최근 수년간 지켜온 '실력 광주'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고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 여름방학 보충수업 시간을 고1, 2학년의 경우 80시간, 고3은 100시간으로 묶고 준수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고교의 경우 지난해까지 여름방학 보충수업 시간을 1.2학년과 3학년 규정시간보다 최소 20시간 늘려 적용해

왔으나, 이번 여름방학에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더욱이 장위국 교육감 체제 출범 이후 올 겨울방학 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보충학습까지 금지한 상황에서 여름방학 보충학습시간이 줄어 올 수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겨울방학에 고1, 2학년의 경우 보충수업시간을 기존 100시간→80시간, 3학년은 120시간→100시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지난해까지는 겨울 방학 중 월~금요일까지 1일 4~5시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120~140시간의 보충수업을 해왔으며 오후에는 자율학습을 해왔다. 방학중 학습량이 크게 줄자 일선

고교에서는 벌써부터 학생들의 올 수능성적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급기야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은 지난 6월 중순께 장위국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이번 여름방학의 경우 3학년 보충수업 시간만이라도 20시간 더 늘려줄 것을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보충수업 시간을 늘려달라는 학교가 있는 반면, 감축을 원하는 학교도 있는 만큼 현행대로 보충수업시간을 운영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 교육청 주관으로 일반계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이번 여름방학에 논술(22일~8월16일)과 국사, 물리 등 소수 선택교과(20일~다음달 19일)에 대한 특별 보충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보충수업 희망학생을 모집한 결과 논술은 667명, 선택과목은 263명이 신청, 사실상 전체 학생들이

학습기회를 부여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의 한 고교 교감은 “수도권에 비해 입시 정보에도 취약하고 이렇다 할 사교육 시장도 없는 광주학생들이 수능에서 선전한 것은 물리적인 학습량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열정을 갖고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의 손발을 묶으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3 자녀를 둔 유모(49)씨는 “입시의 최종 성과가 수능성적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광주의 공교육이 약화되는 것 같다”며 “교육청이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충수업 시간의 감소가 학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4일 광주 정보교육원에서 광주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1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지원전략 설명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원자력 발전시설 부지라도 직접 관련 토지만 세제혜택”

서기동 구례군수 징역 7년 법정구속

대법원 판결

광주지법, 사무관 승진·요양원 건립 뇌물 수수

원자력 발전을 위해 수용한 부지라도 시설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가 아니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의무확보 부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광군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행뉴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4일 공무원 승진 인사 및 요양원 건립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서기동(61) 구례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서 군수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공무원

원 임모씨와 요양원 공사 편의의 대가로 서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부정부패를 단속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승진 인사 대가로 돈을 받고 요양원 건립 공사 과정에서 업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그 죄가 중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 군수는 2008년 8월 단행한 사무

관 승진 인사에서 승진한 임씨로부터 5000만원을, 구례 모 요양원 건립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48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5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여중생을 노래방 도우미로

보도집 운영 조폭·노래방 업주 등 무더기 검거

광주남부경찰

조직폭력배로부터 10대 노래방 도우미를 소개(광주일보 2011년 3월 9일 6면)받아 영입한 노래방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14일 10대 여성들을 도우미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한 일모(46)씨 등 노래방 및 유흥주점 30명을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등 광주지역에서 노래방과 유흥주

점을 운영중인 임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모(15)양 등 10대 여성 8명을 도우미로 고용한 뒤 손님들과 어울리게 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 등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들로부터 김양 등을 소개받아 노래방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래방에서 일한 10대 여성들 가운데에는 중학생 등 학생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한국인 남성과 재혼 앞두고 날벼락

조선족 여성, 아들과 함께 택시 치어 중태

재혼을 앞둔 40대 조선족 여성이 아들과 함께 길을 건너던 중 택시에 치어 중태에 빠졌다. 조선족 유모(여·45)씨는 14일 새벽 0시5분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 병원 앞길에서 아들 박모(27)씨와 함께 길을 건너던 중 택시에 치였다. 이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 머리를 다친 유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아들 박씨는 팔과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

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입국한 유씨는 국내에 거주하던 아들과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거주했으며, 한국인 남성과 재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북부경찰은 택시기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이들의 무단 횡단, 택시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선재성 부장판사 재판 광주지법서 계속

광주지법, 재판 관할 이전 요청 않기로

고위법관으로 전례 없이 피고인석에 서게 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을 자신이 근무했던 광주지법이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선 부장판사 재판의 관할 이전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관할 이전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선 부장판사 등이 이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관할 이전은 특정 사건의 관할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가까운 상급법원(광주고법)의 결정을 통해 다른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358) 김중두



농약 살포기 깔려 40대 숨져

14일 오전 8시경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아계마을 한 농장에서 김모(46)씨가 작업 도중 2차러 농약 살포기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경사로에서 작업을 하던 농약살포기가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금목걸이 날치기범 검거

광주광산경찰은 14일 차를 타고다니면서 행인의 금목걸이 날치기를 한 윤모(45)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20분경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모 아파트 앞 골목에서 행인 윤모(여·50)씨의 금목걸이를 낚아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날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어플 통해 만난 여자 몸 더듬고 폭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어플)을 통해 만난 여대생을 술에 취해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주먹까지 휘두른 20대가 경찰서 행.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6)씨는 지난 8일 밤 9시30분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A(여·23)씨를 강제로 껴안고 몸을 더듬은 뒤 폭행까지 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운 스마트폰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어플로 A씨를 만난 이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관리 미적

장흥지원, 공무원 이례적 징역형

법원이 이례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김용중 판사는 14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소홀히 해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장흥군 민원처리과 조모(41·세무 7급)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난 2005~2009년 장흥지역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383명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8급 박모씨에 대해서는 위반 건수가 100여건으로 사안이 경미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한 사례는 지난 2009년 수원지법과 논산지원에 이어 3번째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kykim@

Advertisement for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2012 Academic Transfer with Kim Young). It features a large star graphic and text: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140,000 successful students say),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Contributing to the welfare of the people), and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7 out of 10 successful students are graduates of Kim Young). It lists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 적분과정/선형대수)', and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Contact info: 'www.kimyong.co.kr 개강 : 8월 1일'.